

【어원 탐구 3】

민며느리

이기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현대국어를 조금이라도 찬찬히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무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말들이 뜻밖에 많음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지표(地表)에 화석(化石)이 경성드뭇이 박혀 있듯이, 현대국어에 옛말의 조각들이 남아 있어서 현대국어의 지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 한 예로 '민며느리'를 들 수 있다. 며느리를 삼으려고 일찍 데려다 기르는 여자 아이를 가리키는 말에 왜 '민'이 쓰일까. 어원론의 관점에서는 '며느리'도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지만, 이 글에서는 '민'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사전들을 들추어 보면 이 '민'에 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문세영의 <朝鮮語辭典>(1938)이 '밑머느리'라 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19세기 말에 외국인들이 편찬한 사전들이 '밋머느리'라 표기한 것도 같은 어원 해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밑머느리 幼婦 Petite fille placée et élevée dans la maison de son futur beau-père, en attendant l'âge du mariage. (韓佛字典, 1880, p.241)

밋머느리 A girl brought up in the home of her future father-in-law. (韓英字典, 1897, p.338).

참고로, 이 사전들에는 '밑'(本, 底)이 '밋'으로 표기되었음을 지적해 둔다. 이와 같은 생각은 이윤재의 <표준 조선말 사전>(1947)에까지 이어졌다. 이 사전에서도 표제어가 '밑머느리'라 되어 있음을 본다.

둘째 견해는 한글학회의 <큰 사전> 제2권(1947)에서 볼 수 있다. '밑머느리'를 '민머느리'의 비표준어로 처리하고 '민머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해를 달았는데 그 중의 '민머리'가 우리의 눈길을 끈다.

머느리를 삼으려고 관례(冠禮)를 하기 전에 민머리인 대로 데려다가 기르는 게 집아이.

이 사전 제1권 첫머리의 범례(凡例) 제5항 '어원(語源)의 표시'를 보면 "어휘 자체로서 이미 어원이 나타난 것은 따로 어원 표시를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해석 가운데 짐짓 어원된 말을 써서 설명을 겸하기도 하고, 혹은 주해 끝에 옛말을 소개함으로써 대신하기도 하였음."이라 했는데 '민머느리'의 주해에 보이는 '민머리'는 바로 "짐짓 어원 된 말을

써서 설명을 곁하기도”한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보다 뒤에 간행된, 이 회승의 <국어대사전>(1961)으로부터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1992)에 이르는 사전들이 이 <큰 사전>을 따라 주해에 ‘민머리’를 넣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민머느리’와 ‘민머리’의 ‘민’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나중에 나온 것 같지만, 예전에도 있었음을 암시하는 자료가 있다. 광문회(光文會)에서 편찬한 <말모이>를 고친 것으로 추정되는 고본(稿本)(金敏洙 編, 周時經全集 5)의 ‘민머느리’의 주석이 그것이다.

독자는 안코 미리 민으로 데리어다가 길러 삼는 머느리

여기에 보이는 ‘민으로’가 문제인데, 이 고본의 표제어 ‘민’이 해답을 던져 준다.

민(인) 아무것도 엮는 쌀 또는 꾸미지도 아니한 쌀(민머리).

민(名) 아무것도 엮꼬 꾸미지도 아니한 것.

참고로 이 고본의 ‘민머리’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ㄱ) 아무것도 쓰지 아니한 머리. (ㄴ) 벼슬 못한 사람이니 예적에 벼슬한 이는 감투를 쓰고 못한 이는 쓰지 못함으로라.

2

옛 책들을 들추어 보면 ‘민머느리’는 근대국어에 몇 예가 보일 뿐이다.

豚養媳婦 민머느리 (譯語類解 上 41)

童養媳婦 민머느리(漢清文鑑 5. 38)

童養媳婦 민머느리(方言集釋 1. 14)

그런데 여기서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위에 든 〈譯語類解〉의 ‘민머느리’ 바로 앞에 보이는 ‘민사회’의 존재다.

養老女婿 민사회 (譯語類解 上 41)

이 말은 그 뒤 폐어가 된 듯, 어느 문헌에서도 ‘민사회’나 ‘민사위’는 보이지 않는다. 이왕에 간행된 고어사전들에는 ‘민사회’가 실려 있는데 예외없이 ‘테릴사위’라고 주석을 달았음을 본다. 그러나 테릴사위에 해당하는 ‘드린사회’가 따로 있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어의 ‘贅婿’에 해당하는 국어 단어로 ‘드린사회’가 〈同文類解〉(上 10), 〈譯語類解補〉(33), 〈漢清文鑑〉(5. 41)에 실려 있다.

이 방면의 전문가들에게 물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민사회’는 預婿로서 贅婿(테릴사위)와는 구별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저 위에 든 현대 사전들의 두 견해는 역사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릇된 것임을 지적해 둔다. 첫째 견해는 ‘민사회’의 존재로 그 잘못이 분명히 드러난다. ‘밀사회’가 ‘민사회’로 변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견해는 ‘민머느리’의 ‘민’과 ‘민머리’의 ‘민’을 같은 말로 보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앞것은 ‘민’이요 뒷것은 ‘뫼’으로 서로 달랐음을 모르고 내린 추론이었다. ‘민머리’는 중세와 근대의 문헌에서 ‘뫼’으로 표기되었음을

본다.

秃 髻 獨 俗呼秃廝 머리 된 놈(訓蒙字會 上 29)

秃子 된머리 (譯語類解 上 29)

秃子 된마리 (漢清文鑑 8. 15)

이 ‘된’이 ‘뒨’으로 표기된 예도 근대 문헌에 보인다.

秃子 된마리(同文類解 下 8)

18·19세기의 국어에 ‘뒨-’에서 온 ‘뒨-’가 있었음은 다음 예들에서 확인된다.

脫頂 압 뒨다(漢清文鑑 5. 48)

뒨머리 蓬頭 Tête chauve (韓佛字典 250)

이 예들에 나타난 ‘뒨-’는 지난 88년의 <표준어 규정>(14항)에서 ‘미다’에 표준어의 자리를 내어 준 ‘무이다’를 연상케 한다.

3

‘민며느리’의 ‘민’은 대체 어떤 말인가.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얼핏 생각해서는 도무지 감감할 뿐이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訓蒙字會>(下 21)에 보이는 ‘민갑’이다.

賧 민갑 드릴 렴 市先入直

끝에 붙인 “市先入直”은 〈廣韻〉에 있는 주해를 옮겨 적은 것이다. 〈集韻〉에는 “市先入直 若今贖錢”이라 있다. 이로써 ‘민갑’이 앞돈 즉 선금(先金)을 뜻했으며 ‘갑’은 필시 명사 ‘값’(價錢)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민’은 ‘미리 치름’을 뜻하는 것이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민’은 〈新增類合〉(下 44)의 ‘賧’의 새김에도 나타난다.

賧 민빔 사

이것은 요즘 말로는 외상을 뜻하는데, ‘민빔’은 미리 지은 빚을 뜻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빚은 으레 미리 지는 것인데 수식으로 ‘민’을 붙인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빔’에 ‘값’과 ‘빚’의 두 의미가 있어서 ‘민빔’이라고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위의 한자의 새김이 〈訓蒙字會〉(下 21)에는 ‘원빔’으로 나타남을 여기에 덧붙여 둔다. ‘貰’도 같은 새김을 가지고 있었다.

賧 원빔 사 白手取物價直在後曰賧買 又遠也

貰 원빔 세 與賧同意 又赦也

오늘날 ‘외상(外上)’이라고 하는 말은 근대국어 문헌에 ‘외자’로 나타난다. “上자 還上 捧上 外上 皆曰자”(古今釋林 卷 40, 羅麗吏讀) 참고, ‘上’을 ‘자’로 읽은 까닭은 덮어 둘 수밖에 없으나, ‘받자’(捧上)에서 ‘받-’이 용언의

어간인 점을 감안하여 '외자'의 '외-'도 그렇게 본다면 '원빈'의 '원'의 어간 '외-'가 여기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민갑', '민빈'의 '민'은 우리의 애를 태우고 있는 '민며느리'의 '민'과 의미의 관점에서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민갑'은 미리 치르는 값이요 '민며느리'는 미리 데려다 기르는 며느리이니 이 '민'은 예선(豫先)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 한 단어라고 단정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이상의 간단한 논의로 우리가 추구하는 현대국어의 '민며느리'에 화석으로 남아 있는 '민'의 정체를 중세국어의 '민갑', '민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민'은 중세국어에서도 이미 그 용례가 극히 제한된 화석이었음이 드러나 우리의 갈 길이 막막해짐을 느낀다. 그러나 어원 연구에 손을 대어 본 사람이라면 여기서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어원 연구의 과정에는 여러 고비가 있어서 그 고비를 넘기면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화석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어원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일의 하나다. 여기서 어원 학자가 취할 수 있는 길은 그 화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석을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탐색은 '민'이 본래 어떤 용언의 활용형이 아닐까 하는 가

정에서 출발한다. 관형어인데다 '-ㄴ'으로 끝난 점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가정 위에, 내친김에, 본래의 어간형을 더듬어 보면 '*미-'와 '*밀-'의 두 가능성이 있음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부사 '미리'의 존재다. 과문의 타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대국어나 중세국어 문법에서 어떤 분석이 이루어진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하나의 외떨어진 화석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용언 '*밀-'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파생어일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의 '민'도 기원적으로는 이 어간 '*밀-'의 활용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첫째, 의미의 관점에서 이 결론은 아무 결함이 없다. 이에 관해서는 더 말을 덧붙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둘째, 음운의 관점에서도 이 결론은 흠잡을 데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세국어의 음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조(聲調)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민'과 '미리'는 이 점에서도 균색한 점이 없어 보인다. '미리'는 중세 문헌에서 평성·거성으로 나타나는데 <訓蒙字會>에서 '민갑'의 '민'에는 상성점이 찍혀 있다. 이것은 그 어간 '*밀-'이 상성이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ㄴ"으로 끝난 상성 단음절 어간에 '-이'가 붙어서 파생된 부사의 성조가 평성·거성이 되는 예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 성조의 완전한 일치하는 우리의 결론을 한결 더 든든하게 한다.

(어간)	(관형형)	(파생부사)
* : 밀-	: 민	미·리(豫)

: 멀-	: 먼	머·리(遠)
: 길-	: 긴	기·리(長)

5

끝으로 위의 논의에서 마저 하지 못한 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둔다.

첫째, 중세국어의 '민갑'의 '민'은 상성이었는데 현대국어(서울말)의 '민며느리'의 '민'은 짧게 발음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것은 중세국어의 상성이, 특히 첫음절에서는, 현대국어의 장음과 대응되는 일반적인 경향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그럴만한 사실들을 더 살피기도 하고 정밀한 방언 조사도 있어야겠음을 느낀다.

둘째, 이 글에서 우리가 가정한 용언 '*밀-'(豫)과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도록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언 '밀-(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음직하다. 이 '밀-'(推) 역시 상성인 점이 주목되기도 하지만 의미의 관점에서 보아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혹시 이 둘의 동음성(同音性)이 '*밀-'(豫)의 존재를 위협한 요인이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